

발도르프 학교의 정신성 - 요하네스 킬

2026년 1월 13일 19:00~21:15

통역 장은심, 서기 이예빈

요하네스 킬 선생님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 딱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도르프 학교는 에밀 몰트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는 자기 공장의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발도르프 학교들은 세계 1,400여 개의 정도의 학교는 부모님들의 동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제 학교에 나이가 든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은,,”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이 든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학교를 시작할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곳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험한 것이지만 배우지 않으려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가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의 의지는 엄청 큼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서로 간의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엄청나게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결합해 결론적으로 학교의 과제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이후의 삶을 위해 보호하고 일으켜서 한 개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아이가 자신의 육체적인 몸을 길러야 하고 건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영혼적 건강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늘 슬픈 분위기를 지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슬픈 분위기를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밖으로 나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 고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은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서야 정말로 알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을 인간은 내부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들으면서 발도르프 학교의 정신성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조직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까요?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맡길 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맡긴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완벽하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가 네 명인데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길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에 대해 감사함이 특별했습니다. 그것들이 운명적으로 엮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네 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마다 ‘바로 저 선생님을 원했어’라고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슈투트가르트학교의 교사였을 때 좀 큰 애가 있었고 둘째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엄청 특별했습니다. 내가 교사였기 때문에 누가 그 아이의 담임교사가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도르나흐에 가서 1학년 선생님을 만났는데 막내의 담임교사이었고 ‘아, 바로 이분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한 측면은 커다란 신뢰, 다른 측면에서는 감사함입니다. 부모로서 느끼는 큰 신뢰와 감사함이 엮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오면 담임 과정에 있을 때 엄청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만 12세 아이에게 “너 영어 열심히 해야 해. 직업 가지려면 필수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 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기뻐하게 할 거야’라고 느끼면 기꺼이 합니다. ‘나는 이것을 정성스럽게 할 거야, 아름답게 할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뻐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못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만약 내가 이것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슬퍼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안 합니다.

슈타이너 박사는 학교에 자주 갔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축사하고, 끝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생님을 사랑합니까?” 물으면 학생들은 크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조금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학급에 들어왔는데 칠판에 동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학생이 “뭐지? 저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염소예요?” “아니 이건 말이야”. 선생님이 칠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그때 진심으로 “와 정말 멋진 말을 그릴 줄 아시네요.”라고 경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 발달기록을 쓰는데 손으로 쓰다가 컴퓨터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제 딸은 커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께서부터 아주 예술적인 아름다운 손 글씨로 아동 발달기록을 받았습니다. ‘봐봐 우리 선생님 글씨 너무 예술적이지 않아?’ 학령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은 교사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받을만한 존재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야 하지? 거기에 두 번째 질문이 엮어집니다.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는가? 1, 2학년 때는 별문제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5, 6, 7학년이 되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뜻은 교사로서 사랑하는 아이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특별하게 애착이 가는 아이가 생긴다면 꼼꼼히 작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이 나에게 비호감적으로 나타나도 나는 사랑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첫 번째 방법은 저에게 비호감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일입니다. ‘또 잘못하는구나’가 아니고 그 ‘아이의 머리카락은 어떤 색깔인지, 인사하며 느끼는 손의 모양, 느낌, 따듯함은 어떻게? 어떻게 걸어 다닐까? 뒤꿈치로? 뛰면서 다닐까? 아니면 등이 굽은 채로? 아니면 가슴을 내밀고 다니나?’ 8, 9학년 때에는 모자 달린 옷을 너무 좋아합니다. 후드티를 머리에 꼭 쓰고 다닙니다.

가능한 한 아이에 대한 좋은, 진실한 상을 가져오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밤마다 돌아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를 만나겠죠? 그리고 다시 관찰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습니다. 수업하고 학생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고 며칠 동안 관찰을 한 후 아이에 대해 꿈을 꿉니다. 학생에 대해 객관적인 관계를 맺고 그 위에 사랑이 엮어집니다. 한 측면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아이가 교사를 사랑합니다. 그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면, 그 사이에 객관적인 사랑이 형성됩니다. 즉 사랑의 분위기가 생기는데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세상에 오는 것일까? 이 사랑은 개별적인 남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세상에 오는 것일까? 슈타이너가 공개 강연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우리들의 선생님일 수 있고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수도 있다. 그 선생님은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한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인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관계는 상급이 되면 바뀝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사랑의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상황이 바뀝니다. 전에 가졌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교사에 대한 집중도가 강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주의 집중력이 생겨날까요? 예를 들면 학생들도 깨닫습니다. ‘교사도 되어가는 중이구나, 사람이구나’를 봅니다. 상급 학생들은 교사를 보면 ‘누가 노력하며 가는 중인지, 누가 직업적으로 다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상급에서는 특별한 것이 더 추가됩니다. 그게 사실은 신뢰하고도 연관 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유머입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재미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수학을 수업할 때 수학 시간에 색분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작업할 때 제가 돌아다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내 분필이 어디 갔는지 몰라 “빨간색이 어디 갔지?” 하고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반으로 들어갔더니 칠판이 있고 천장에 풍선이 달려있었습니다. 헬륨가스를 담은 풍선이 있었습니다. 풍선 아래에 실이 달려있고 그 아래에 분필이 색깔별로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당겨서 수업했습니다. 그 반은 뭔가를 잘 만들어 내는 반이었습니다.

다른 예는 어느 수학 시간에 제가 판서를 하기 위해, 돌아서 칠판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학 법칙 중에 면적의 동위성에 대해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학과 상관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눈 올 것 같아요?’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질문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밖을 내다보며 ‘그렇지도 모르지’ 라고 대답하고 판서를 끝내려고 이어서 썼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가 펄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지 하고 돌아봤더니 아이들이 눈 반짝이를 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학의 교육학 시간에 이런 상황의 대처법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 때 나는 젊었고 반응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수업 하던 거 마저 하고, 그리고 청소해야겠어요. 너무 더럽잖아요.’ 그렇게 말했고 아이들은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가방을 열었더니 당연히 눈 반짝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것도 일종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영역입니다.

교사가 한 아이와 어려운 경우, 당연히 이때도 정확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나는 2년 전이든, 그 상황 속에서 ‘학생이 현재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아이, 현재형으로 그때 모습, 아이의 존재성을 드러낼 때는, 예술 작업 할 때 많이 드러납니다. 악기 연주에 집중하면 그 아이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 아이가 일상에서 무례하면 그 아이가 예술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었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슈타이너 표현에 의하면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 자신 모습으로 드러나면 천사가 그 존

재와 함께하는 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이들

부모 신뢰 교사
학교 운영체 교사회
(칠판 그림)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갈 것인가?

외적인 측면으로 단순하게 말해보면 교사들이 기획합니다. 부모들은 손님이에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한쪽은 기획자고 한쪽은 손님이면 기획자가 생산을 잘 못하면 손님은 갑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표면적으로 학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발도르프 학교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시작하고 운영합니다.

여기에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어떤 신뢰를 가져야 하는가? 교사는 교사회를 통해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모로부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법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사회가 있습니다. 긴장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사회를 보십시오.

이 교사 회의라는 것은 항상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사회라는 것은 한 개인이 전체 연결성으로 교사 회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일하다가 나갈 거야’라는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학교야’라는 것이 형성된 교사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 회의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안에 따라 대화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교사가 ‘교사회가 이렇게 결정했어’라고만 말하면 학교가 참 어려워집니다. 잘 살펴봐야 할 것은, 한 개인이 책임질 일인가 전체가 책임질 일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 한 교사가 책임을 맡습니다. 그분이 일의 책임자이고 함께 그 일에 대해 생각을 모읍니다. 회의에서 모든 상황을 들었고, 모았고, 그리고 결정은 책임을 맡은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그랬을 때는 교육회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수학 교사가 옵니다. 이미 있던 수학 교사가 신입 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수업 참관을 하고 시연을 하기도 합니다. 회의에 와서 전임 교사가 그 간의 작업 과정을 보고하고 우리가 이 신입 교사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전체 교사회가 이를 신뢰합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수학 교사가 1차로 보고하면 신뢰를 보내고, 그다음 교사회 전체에 신입 교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 한 번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은 얘기되었고, 결정은 다음 주에 합니다. 이런 결정 과정에도 일정 정도의 예술성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일에서는 개

별적 책임을 갖는 부분, 그리고 공통적 책임을 갖는 부분을 나누는데, 그에 대해 예술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학교를 아는데 이 학교를 운영하는 작은 팀이 있습니다. 작은 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결함이 안 되고 흠어집니다. 반면 모든 것에 모두 다 같이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걸립니다. 즉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예술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를 잘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회의를 이끌면 영원히 걸립니다. 어떤 분은 천재적입니다. 다른 한 분은 안건이 올라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비판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의 전에 야기될 문제 제기의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충분히 토의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면 다음 주로 넘깁니다. 많은 것을 했는데 시간은 적게 걸렸습니다. 어떤 안건에 이분이 문제제기 할꺼야를 예상하고 미리 이야기하면 회의 시간에 긴 논쟁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교사회 영역입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심각하게 겪었던 문제인데, 학교의 학생 수가 적습니다. 스위스의 어느 한 지역(연방 주)에 연결된 학교인데, 규정이 바뀌어 학교 운영의 전제조건이 달라진 복잡한 상황의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재정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학교 운영조직 중에 의장단이 '이런 상황에서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이어지면 우리는 파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사위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교사회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견해 차이가 발생하면,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나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운영을 맡은 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사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 교사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교사로서 부모들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교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서로 볼 수 있다면 함께 그때는 기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 학교는, 학생의 수가 적고 재정이 부족해 교사 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교사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도르나흐, 슈투트가르트학교에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재정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교육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을 했는데 일면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사가 느끼기에 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겠다는 때가 있습니다. 균형이 잡히면 이런 팀이 고문단, 자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 팀에서 교육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중에 라틴어 수업이 있는데, 수업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교사 회의에서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은, 우리 12학년 졸업여행을 할 수 있을까? 12학년 때 프로젝트, 수업, 연극, 오이리트미, 오케스트라, 합창도 해야지 거기다 졸업여행까지? 12학년에 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너무 많고, 교사들이 느끼기에 너무 많다면, 질문은 '그럼 뭘 빼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은 잘 되는데 빼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그룹 없이도 어떤 싸움의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인지학자 중에 갈등 해소법에 대해 강의하시는 분이 있

습니다.

첫 번째 도움이 될까요? 가능한 한 빨리 분쟁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점점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내용은 상관없이 싸움 자체에 매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학교 그리고 괴태아눔에도 조정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은 투표로 뽑습니다. 부모와 교사 각각에서. 3명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 팀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을 잘 운영한다면 갈등이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죠. 그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사와 부모만이 아니라 교사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간의 갈등은 허락되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듣는 슬픈 일은, 발도르프 교사가 동료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슬픕니다.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할까? 즉 어떻게 갈등적, 투쟁적 상황에서 벗어날까요?

그를 위한 첫 번째 생각은 위기가 오면 그것으로부터 배운다! 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배움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와야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의 발걸음은, 우리는 우리의 이상적인 학교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 이상적인 상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동료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어떤 동료가 누구랑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 나타나지도 않고, 못 온다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의식을 올려봅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야. 그것은 그의 약한 점이겠지. 나에게 약한 점이 있듯이.’

거기에 우리의 시각을 모을 수 있을까요? 즉 이 학교가 가져야 할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이상적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보고 우리 함께 할 수 있어!’라며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했어.

너는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해

너는 옳다고 생각하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흥미로운 격언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슈타이너가 말한 격언입니다. 슈타이너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앞에 강연과 무슨 상관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격언이

미래에 협력적 작업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필요한 경구라 생각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학교의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물질에 몰두한다는 뜻은

영혼을 완전히 갈아 넣는 것이다.

정신성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인간들을 본다는 것은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것이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미래를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1. 교육적 그룹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 각 학년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그룹에 옵니다. 그 대표들이 학급의 교육적인 것들에 대해 책임지고 옵니다. 나는 그 교육회의에 가고 싶다 하면 개별 부모도 올 수 있는데 오겠다 하면 꼭 와야 합니다. 당연히 특별하게 못 오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경우 사과를 전해야 합니다. 뭔가를 할 때 연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에 관한 관심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그룹에서 경험한 것은 흥미로운 부모님들이 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종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왔습니다. 교육적인 전공과 전혀 무관한 분들도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육적인 관심을 갖고 오면, 세계가 학교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미국인 에머슨, 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인물은 영어권 나라에서 괴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자연과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고 글을 썼었습니다.

2. 예로 교사 간의 갈등을 들어주셨는데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갈등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갈등이 생길 때 교육적 문제로 생기는데 그래서 교육적인 것은 교사회가 주가 되는데 예를 들어 pc방 출입, 이것은 시대의 변화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징계에 대한 불만처럼 교사와 부모 사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상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가요?

: 질문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우리의 교과과정 중에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2학년에게 우화를 들려줍니다. 우화를 들려주는 것은 시대 변화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물리 전공이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제안을 보면 1920년 9학년을 위해서 전화기, 증기기관 원리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화기는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기차는 증기기관의 원리로 달렸습니다. 그 당시 최신의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11학년에서 방사선에 대해 다루라고 했는데, 1922년에 방사선에 관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파동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방사능은 19세기 말에는 10년 정도 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한 것 이랑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컴퓨터를 갖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와서 컴퓨터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겨 같이 이야기해야 할 때 나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게임의 중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문제가 현실적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가? 40년 전에는 텔레비전 시청이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규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학교는 게임을 하면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유감스럽습니다. 아이가 이 문제로 학교를 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가 많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 학교, 교사가 예민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습니다. 왜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미국 미니애폴리스 이민자 단속 사건 과정에서 30대 여성이 ICE 요원에 의해 숨졌습니다. 독일의 나치 상황과 비슷합니다.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게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갈등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 간 교육적 갈등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규칙에 따라 벌칙을 줘야 할 때, 그것에 대해 가능한 한 일찍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저는 부모에게 전화 걸어서, '아이가 이 행동을 3번 이상 했습니다. 학생에게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중요한 발걸음인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큰 문제로 발생합니다. 10~12학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계를 잡는가는 상급일 때 달라져야 합니다. 10학년 이상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부모에게 적절한 시기에 알림이 중요합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면 갈등 상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부모들은 신뢰를 갖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생각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헤어져야 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학년 연극이 있었습니다.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주인공을 맡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교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밤늦게 왜 우리 아들이 주인공이 아닌가요? 근거는 주인공 했던 아이는 맨날 주인공 하는 아이잖아요 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그 일에 대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깊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남편하고도 이야기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33살이었을 때입니다.

3. 만약 선생님이 그 일을 겪었을 때 발도르프 학교 교사가 아니고 일반 학교 교사였다라면 좀 덜 상처 받았을까요?

:정확히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상처받았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나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항의한 그 아이를 나는 더 무심하게 대했나?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긴 합니다.

상처를 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 사람이 미쳤나?' 정도 생각하고 까먹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은 아닙니다.

4. 아이가 배우는 힘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어떻게 제가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강의를 원합니까? 라고 은심에게 물었습니다.

학교가 어떤 원칙으로 갔으면 좋을지, 학교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원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정신적, 사회적 원칙에 대한 기초입니다.

도대체 정신성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교사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정신세계에 있는 세 번째 존재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천사와 대천사와 아르하이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슈타이너가 주는 과제입니다.

이것을 부모님들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분위기와 이 주제가 연결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더 깊게 가보면 어떻게 가꾸고 보호할 것인가, 거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슈타이너가 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의 교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생각해서 깊어지면 경외를 표현할 수 있는 태도, 제스처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사랑의 스승입니다.

